

강진착한한우, 추석선물세트 판매 '대박'

강진군 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업소 3개소(강진완도축협, 착한한우명품관, 명성축산영농조합법인)의 '추석 특별 판촉행사 기간' 매출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강진군 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업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12일까지 18일간을 '추석맞이 강진착한한우 특별 판촉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판매를 진행한 결과 1만여 건의 주문이 접수됐으며 12억 8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명절 기간 중 올렸던 매출인 8억4천만 원에서 약 60% 늘어난 것이다.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매출 향상의 주요인으로는 높은 고객만족도에 따른 주문량 증가가 꼽히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리뷰란에 맛 좋고 실속 있는 구성으로 배송된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온라인 주문량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진군 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업소는 '강진착한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등 10여 개 온라인 매장에 입점해 판매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물론, 서울에서 개최된 '코엑스 한가위 명절 상품전'과



강진착한한우명품관에서 강진착한한우 현장예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대표 한우브랜드... 지난 추석 보다 매출 60% ↑ 매출 향상 주요인은 높은 고객만족도 따른 주문량 증가

'한우명품숯불구이 대축제'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강진만 추추는

갑대축제에서 한우 숯불구이 대축제가 함께 추진되며, 그 기간 동안 최대 20% 할인 판매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하시어 품질 좋은 강진착한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맛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강진=전운재 기자 wjun@

완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위해 국제 협력 나서

캐나다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과 합의문 서명

완도군은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토피노시를 방문,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CBT)과 상호협력하기로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지역은 캐나다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뛰어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협력 아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바다와 섬, 숲 등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해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지역과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하고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다.

서명식에는 레베카 휴이트 클레이요트

생물권보전지역 연맹 대표 이사, 조지 오스본 토피노 시장, 정석호 완도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민과 공동체, 연구자들 간의 연합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참여, 생태학적, 예술과 문화, 교육 관광 및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문 서명은 신우철 완도군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2017년부터 계획됐고 꾸준한 접촉 끝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한편 토피노시는 2000년을 전후로 벌목 산업 중심에서 관광 산업으로 전환, 생물권 보전지역의 대외적 명성을 활용하며 현재 산업의 90%가 친환경 관광 산업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에 군은 관광 산업 확장을 위해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의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벤치마킹해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지키는 일이다."며 "해양치유산업과 생태문화를 접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오는 2020년 2월 본 신청서(국문본)를 한국 MAB에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영문본 신청서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완도=윤규진 기자 jin2001@



완도군은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토피노시를 방문,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과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제공

신안 '앵프터 스쿨' 전시회 성료

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테라피 수업 작품 전시

신안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군청 1층 로비에서 '앵프터 스쿨(‘애프터 스쿨’+‘앵무새’ 합성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테라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린 40여 점의 그림 작품과 파충류 전갈 등을 키우기 위해 생태계 환경을 재현한 비바리움 작품 10점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동물과 함께하는 아트 테라피' 수업은 희귀동물을 접하기 어려운 관내 초등학교(압해초등학교·압해동초등학교·안좌초등학교·자은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교시 동물매개교육, 2교시 아트테라피 수업으로

6회차 진행됐다. 신안문화원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동물매개교육의 선두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스피스(SPIX, 대표 이찬솔)와 아동미술교육 전문가 강지수(전남 청년 내일로 신안문화원 인턴) 등이 참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앵프터 스쿨 전시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가가 돼 동물과 교감한 감정을 예술로 표현한 의미있는 작품전시회이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수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신안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군청 1층 로비에서 '앵프터 스쿨(‘애프터 스쿨’+‘앵무새’ 합성어)' 전시회를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해남,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사업 지원 확대

최대 1천만원 지원, 출입구 분리·CCTV 설치 등 개선도 가능

해남군이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나 층별 분리를 추진할 경우 공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이 추가돼 신청의 폭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

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 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물량은 2동이며, 지원은 최대 1천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환경교통과 환경미화팀(061-530-5336)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사용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군민 편의를 제고하는 환경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